스포츠동아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sportsdonga.com 20판

‘황금빛 내인생’ 서은수가 ‘소은수’가 된 사연 ▶12면

서은수

역시 양김!

〈양현종·김광현〉

국보급 에이스들 동반승리… “명품은 달랐다”

2007년 입단 동기이자 1989년생 동갑내기인 KIA 양현종(왼쪽 사진)과 SK 김광현이 시즌 첫 등판에서 나란히 승리투수가 됐다.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광주 | 뉴시스

양현종, 148km 직구+체인지업 완벽 7이닝 6K 무4사구…81구로 끝냈다

김광현, 533일만에 마운드 복귀 152km 직구·커브·투심 ‘자유자재’ 등판후 머리 싹둑…암 환우에 기부

에이스가 돌아왔다. SK 김광현(30)과 KIA 양현종(30)은 20대 인생을 치열하게 마운드에 바쳤다. 그러나 세상에 지존은 한 명이었다. 사람들은 둘 중 누가 더 강한지를 놓고 얘기했다. 김광현이 더 잘했던 시절이 있었고, 양현종이 더 빛났던 시간이 있었다. 구위로 갈리기도 했었지만, 팀 전력에 따르는 변동성이 있었다.

그리고 2018시즌은 두 남자가 정점에서 만나는 타이밍이었다. 양현종은 2017시즌을 지배한 투수였다. 실질적 자유계약 신분임에도 KIA를 위해 잔류를 택했다. 그 무렵 김광현은 운명을 건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토미 존 서저리)과 재활에 1년을 투자했다. 이제 전성기 구위를 되찾고, 돌아왔다. KIA와 SK는 한국시리즈 우승전력에 근접한 팀으로 꼽힌다. 두 투수가 ‘해준다’는 전제에서의 호평이었다.

김광현은 25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롯데전에 선발 등판했다. 2016년 10월 8일 삼성전 이후 533일만의 정규시즌 마운드 복귀전이었다. 김광현은 최고 구속 152km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 투심으로 롯데 타선을 5이닝 3안타 1볼넷 6탈삼진 무실점으로 압도했다. SK가 5-0으로 이겨서 김광현은 2016년 9월 30일 잠실 LG전 이후 541일 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김광현은 승리 직후 “오랜만이라 긴장했다. 신인 때 마음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포수 미트만 보고 던진 것 같다”고 말했다. 1회 마운드에 오른 뒤 김광현은 관중석을 향해 90도로 인사했다.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감사의 의미였다”고 고백했다. 장발의 김광현은 “첫 등판 후 머리카락을 깎겠다”는 약속대로 25일 경기 직후 미장원으로 향했다. 머리카락은 소아암 환우를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김광현이 빛난 날, 동갑내기 양현종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전을 자신의 게임으로 만들었다. 최고구속 148km 직구에 체인지업을 결정구로 섞어 던졌다. 7이닝을 81구의 투구수로 끝냈다. 홈런으로 1실점했을 뿐, 무4사구로 6탈삼진을 기록했다.

양현종의 호투를 앞세워 KIA는 14-1로 크게 이겼다. 24일 개막전 1점차 패배(4-5)의 충격을 바로 털어냈다. 양현종은 “컨디션이 좋았다. 초반부터 타선이 많은 점수를 내줘 부담 없이 던졌다. 몸 컨디션이나 투구 내용 등의 출발이 지난해와 비슷하다. 직구가 정말 좋았다. 변화구는 준비를 더 해야 할 듯하다. 황재균에게 홈런을 맞은 것도 변화구였다. 무4사구 기록을 챙긴다. 4사구가 없으면 기분이 좋더라”고 소감을 말했다.

2018년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김광현이 에이스 모드로 돌아왔고, 양현종이 건재를 과시했다. 이제 관심사는 두 좌완투수의 경쟁구도다. 라이벌 전선은 리그를 활성화시킨다. ‘타고투저’의 시대, 외국인 투수가 득세하는 시대에 김광현과 양현종은 더욱 묵직한 존재감을 내뿜는다.

▶프로야구 관련기사 2·3·4·6면

인천 |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광주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KBO리그 경기결과 ▶25일

잠실	삼성	4	:	5	두산	고척	한화	4	:	1	넥센
인천	롯데	0	:	5	SK	마산	LG	1	:	7	NC
광주	kt	1	:	14	KIA						

스포츠동아 창간 10주년·프로야구 개막기념 ‘야구용품 타기’ 독자 사은 퀴즈 대잔치

“1000만원 야구용품 쏩니다”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스포츠동아는 창간 10주년과 프로야구 2018시즌 개막을 기념해 ‘야구용품타기 독자사은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퀴즈 5개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20명을 추첨해 프로선수용 글러브와 배트 등 야구용품(1인당 50만원 상당·총 1000만원 규모)을 선물합니다. 특히 글러브에는 당첨되신 분의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스포츠동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퀴즈는 4월 6·7일(주말판)자까지 2주 동안 스포츠동아에 실릴 예정입니다. 우편엽서에 총 5문항의 정답을 적고, 오른쪽 하단의 응모권을 붙여 스포츠동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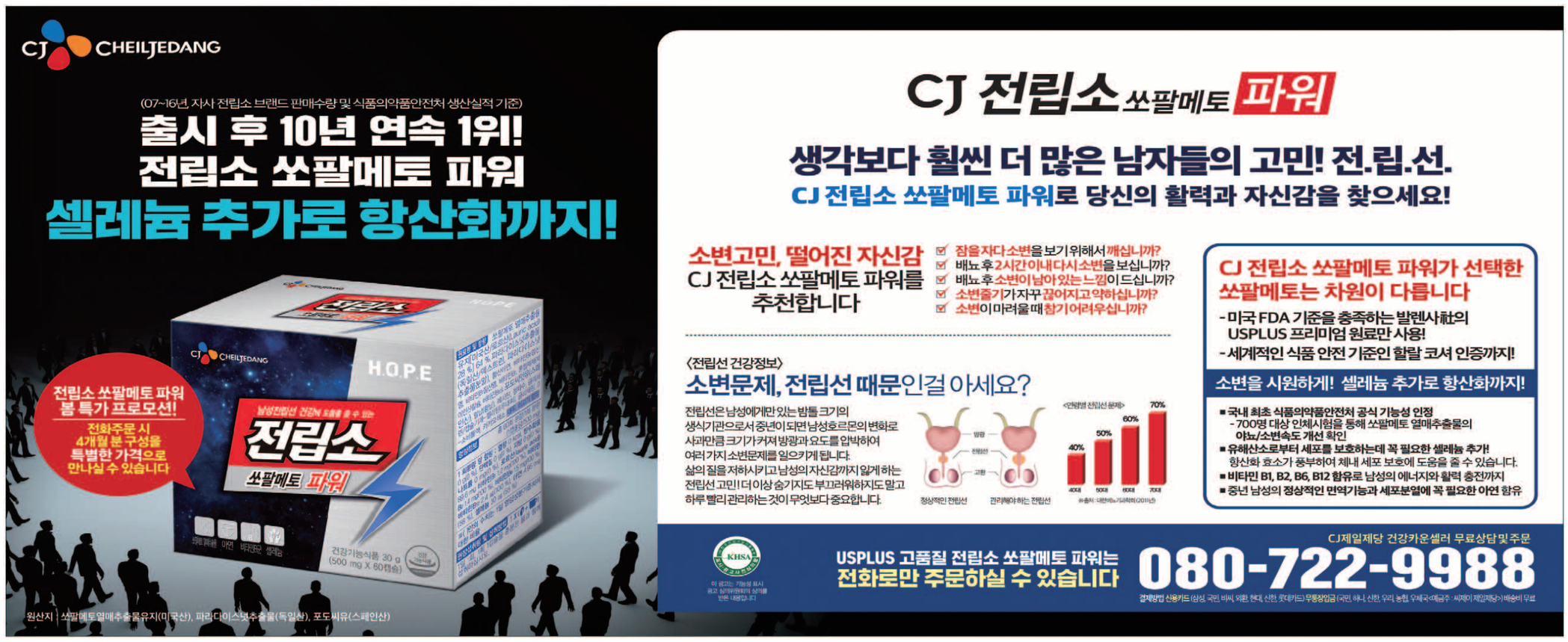
Q1. KBO리그 1군 10개 팀 메인홈구장 중 천연잔디 구장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①잠실 ②사직 ③고척 스카이돔 ④마산

Q2. 다음 감독 중 현역시절 투수출신은 누구일까요?
①SK 트레이 힐만 ②두산 김태형 ③롯데 조원우 ④한화 한용덕

Q3. 올해 8월 KBO리그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돼 참가하는 국제대회는 무엇일까요?
①월드베이스볼클래식 ②올림픽 ③프리미어12 ④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Q4. 다음 중 2017년 프로야구 MVP는 누구였을까요?
①KIA 양현종 ②롯데 이대호 ③두산 양의지 ④NC 나성범

Q5. 다음 중 KBO리그 팀 영구결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KIA 18번(선동열) ②삼성 36번(이승엽) ③한화 61번(박찬호) ④두산 21번(박철순)

●**응모요령**=정답이 하나라도 틀리거나 응모권이 없으면 추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엽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응모마감**=4월 13일(금요일)까지 본사에 도착한 엽서 중 20명 추첨
●**당첨자 발표**=4월 20·21일(주말판)자 스포츠동아 지면
●**상품**=ILB(구 MAX스포츠)에서 제조한 프로선수용 글러브 및 배트 등 50만원 상당의 최고급 야구용품
●**보내실 곳**=(우편번호) 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8층 스포츠동아 편집국 스포츠부
●**문의전화**=(02)2020-1053~4
●**협찬** ILB

응모권 SPORTSDONGA